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이기원, 이욱재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257-1083 • FAX/ 031)251-1779 • http://www.paragate.org • E-mail : chin2002@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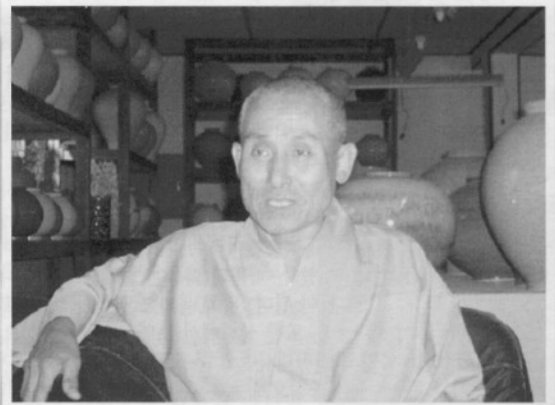
백신에게 듣는다<열아홉번재>

설봉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생활불교의 참모습
- 일시 : 불기 2548(2004)년 10월 16일(토) 오후 3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설봉스님 약력

- ▶ 1971년 봉선사 월운스님을 은사로 출가
- ▶ 1978년 전통공예전(목공예 특선)
- ▶ 1980년 전국민속공예대전 대상, 경인지역 민속공예대전 은상
- ▶ 1981 불우청소년돕기 목공예 개인전, 및 도예전
- ▶ 1984년 전통공예대전 금상, 국군 포교 기금 마련 개인전



10월 사찰환경 답사

“경주 문화답사”

경주박물관 ▶ 골굴사 ▶ 불국사 ▶ 석굴암 ▶ 경주남산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10월 23일(토)~24일(일)(1박2일)
- 출발지 : 23일(토) 오전7시 경기불교문화원 앞
- 동참금 : 6만5천원 (숙식/여행자보험/간식/시찰입장료 포함)

10월호



수미산

고독과 행복의 차이

보현진열 / 감로향사 분향주

철학 개론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그저 이웃과 더불어 잠깐 교류하며 70, 80 살과 고향이라는 저승으로 간다. 그래서 유행가에서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고 질문한다. 저승에서 이승으로 왔다가 다시 인연되면 저승으로 갈 뿐이다. 저승은 무어냐?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맞이해지는 유명계(冥界)다. 모든 생물이 죽으면 거기 가는 세계다. 그 세계도 우리가 사는 이승의 현실계와 한 짝을 이룬다. 남녀가 있고, 한 존재라도 앞뒤 좌우 상하가 있듯이 현실계와 유명계는 한 짝으로 돼 있다. 생과 사가 하나의 존재상이다.

이것은 엄밀한 음양론적 사유관이지만, 그것이 현실인데 어찌하랴! 음양론에 의하면 저승의 일은 곧 이승의 일이니, 이승의 그림자가 곧 저승의 실상이요, 저승의 그림자가 곧 이승의 실상일 뿐이다. 여기서 굽으면 저기서도 굽을 것이요, 저기서 한 일이 여기서도 되풀이될 뿐이다. 서로 음양이 다를 뿐, 둘이 한 짝이 돼 존재하는 세계다. 그래서 저 유명계를 따로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 세계의 그림자가 곧 우리가 사는 현실이니, 우리가 사는 세계를 파악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계를 이해하는 음양적 사고는 크게 대우주론과 소우주론으로 나뉜다.

대우주는 우리가 바라보는 저 자연계의 광활한 모습과 실상을 이해하는 것이니, 이를 우주론이라 한다. 자연을 이해함에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있다. 소우주는 대우주를 근본적으로 닮아 있으며, 대우주의 축소판이라는 전제에서 바로 우리 인간을 이해함이다. 「대우주=소우주」라는 공식에 따라, 자연계의 이해와 인간의 이해가 동일화 된다. 인간을 이해하면 곧 우주를 이해함이 된다. 그래서 인간관은 곧 우주관이다.

그런데 '~을 본다는 볼 관(觀)이기에 보는 관점에 따라, 우주관이나 인간관이 달라진다. 우리의 삶이란 우주관에 따라 살아가니, 어떤 우주관이냐에 따라 제마다 삶이 달라진다. 여기서 보는 각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니, 유파(類派)가 나오고 연구 집단들이 파생한다.

나는 음양적 각도에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한다. 인간의 이해도 우리의 몸 구조를 이해함과 같다. 몸의 생리 구조나 신진대사를 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기엔 철학이 나오고 우주론이 나온다. 그러니 몸의 이해는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철학이자 근거이기엔, 몸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인생관과 우주관을 포괄하는 연구 토대다!

몸은 앞뒤가 분명히 다르지만 좌우의 구조도 다르다. 먼저 사람이 바르게 앉아 있는 모습을 연상한다. 가장 밑은 회음(會陰)이라는 음부와 항문의 사이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 배꼽-명치-입술-코-눈에 이르는 줄을 임맥(任脈)이라 한다. 다시 눈에서 시작해서 가장 윗부분인 백회(百會)를 거쳐 목뼈-등뼈-회음에 이르는 줄을 독맥(督脈)이라 한다. 이 임맥과 독맥이 한 짝이 돼 몸 구조의 앞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회음이나 백회에는 마치 제불토를 켜는 실자국이 주름져 있다. 백회와 회음은 일직선으로 하나로 통하는 음양의 접목점이다.

또 좌우에서 대칭으로 짝이 된다. 왼쪽 몸과 오른쪽 몸이 서로 교감하는 음양의 구조다. 한쪽만 기능해도 반신불수다. 반드시 음양의 조화로운 몸 구조를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하에서 보면, 배꼽을 중심으로 위엔 심장과 눈 머리가 있고, 아래엔 신장과 다리가 있다. 앞뒤 좌우는 몸의 음양적 구조라면, 상하는 음양의 신진대사적인 구조로 흔히 논한다. 크게 3 등분해서 아래를 水 하초(下焦)라 하고, 배꼽 주위를 土 중초(中焦)라 하며, 위를 火 상초(上焦)라 한다. 중앙 土를 중심으로 水는 올라가야 하고 火는 내려와서 조화를 이루어야 만물이 건강하게 산다고 한다. 이 신진대사의 구조가 망가지면 건강이 깨져서 병이 온다. 이렇듯 몸의 유기체적인 신진대사를 음양의 흐름과 조화로 설명하는 것이 동양의 오랜 음양관으로서 우주관 인간관이다. 그래서 보임은 안보임의 나뉠 현상이요, 안보임은 보임의 그림자요 숨겨진 현상이라고 철학한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을 현상이라 하고, 안보이는 것은 없는 듯이 느껴지지만, 그것은 우매한 이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언한다.

이같은 사고의 틀에서, 저승과 이승의 문제로 이해한다. 저승과 이승이 존재상의 한짝으로서 우리 삶의 전부다. 이승에서 보이는 부모 형제 자녀 친구 이웃.....등이 있듯이, 저승에서도 이승에서 안보이는-먼저 가신- 부모 형제 자녀 친구 이웃.....등이 있다. 그래서 이승에서 죽으면 저승에서는 태어남이 됨으로, 죽는다는 함을 흔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신다'고 말한다. 나그네 생활 같은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고향 같은 저승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그 저승과 이승은 존재 구조상으로 임맥과 독맥이 얽혀 있듯이 서로 맞붙어 얽혀 있기에, 이승에서 울리면 저승에서도 울린다. 이승에서의 행업이 곧 저승에서의 행업으로 연결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좌우 앞뒤 상하가 서로 교감하고 신진대사하듯이 교류하고 대화하고 있다. 보이든지 안보이든지 우리는 우리끼리 교류하고 자연과 교류하며 저승과도 밀접하게 신진대사 한다. 그들과 교류하고 대화함은 살아가는 의무이며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자연을 축소한 일부로서 고독하다고 할 수 없다. 원래 자연의 그런 존재상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고독하다고 말한다. 보이는 친구나 가족 또한 이웃과 대화하고 살을 부비며 교감하면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면 고독하다고 상식화돼 있다. 실제로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다가 갑자기 홀로되면 외롭고 고독하다며 참지를 못하고 죽음으로 달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 말한다고 해서 고독하지 말라는 것도 없다. 고독과 행복의 의미를 그저 동물의 느낌 감성에서만 파악하려는 한, 우리는 고독의 늪에서 도저히 빠져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감상적으로 행복하려고 발버둥치면 그 만큼 고독해지는 무게가 커지고, 정말로 고독감에서 우리는 죽어갈 수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화려한 무대를 연출하고 나서, 가끔 대마초 등 마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모두 그러한 감상적으로 행복이나 고독을 파악하기 때문일 것이다.

음양론에서, 고독과 교류는 동물의 한 심리 현상이며 우주관이나 인생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수용하고 향유할 수 있다. 동물은 원초적으로 육욕적인 감성을 토대로 한다. 삶에서 이것이 필수적이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충분한 조건은 육욕적인 감성을 넘는 수양과 철학적인 사색에서 얻어진 우주관 인생관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단순한 동물적인 삶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절실히 요구되는 문화 철학적인 교양을 '사회화'라는 학교 교육이나 사회 현장에서 배워야 한다. 이것이 인류사이기도 하다.

허나, 인터넷이 보급되고 물질 혁명이 일반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신 혁명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감도 없지 않다. 물질 혁명을 못 따라가는 정신 구조상 그러한 것이지만, 자력력을 잃은 일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다. 그들의 내면을 보면 한결같이 '고독하다, 외롭다'... 하는 동물의 생리적 감성에서 헤어날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다. 자기도 주재하지 못한 채 어찌하다가 그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것을 보면 인간관의 음양적인 이해에서는 고독이 있을 수 없지만, 우리가 단순한 동물의 감성이나 분위기에 휘둘리면 엄청난 고독감의 굴레에 자신을 몰아매어 파멸의 나락으로 빠져들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당연한 현상이라기 보다는 음양적인 우주관이나 인간관의 결여에서 비롯됐다고 보아진다. 우리가 음양을 배운다고 할 때, 눈 여겨 볼 일이다.

정기
발표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숯불갈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제6기 불교기초교리생 모집

개강일 : 10월 6일 수요일 / 인원 : 30명 내외

오후 7시 강사 : 전문법사

기간 : 3개월(50,000원)

천년의 신비를 찾아서

보선각 심경숙 / 본원 사찰답사반원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임으로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낯설음이나 어색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편안한 분위기속에 1박2일의 사찰환경답사길에 올랐다. 너댓시간만에 도착한 세계유일의 천불천탑 사찰 운주사는 신비의 미스테리한 사찰이었다. 백제땅임에도 신라와 백제의 석탑양식이 공존한다는것도 의아하고, 탑신에 새겨진 기하학적 문양을 보니 외계인이 조성했다는 말도 나을법도하고, 이집트 고대문자와 같은 상형문자 문양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혼란스러웠으며 또한 이렇게 광범위한 공간에 펼쳐진 대단위의 불사가 언제 누가 창건을 했는지, 골짜기와 바위위에 줄지어 늘어선 천불천탑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정확한 기록도없고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정말 도선 국사가 하루 밤 하루 낮 동안 노력으로 천불천탑을 만들었으며 아직도 바위위에 누워있는 그 와불만 일으켜세웠다면 진정 이땅에 융화세상이 이루어졌을것이라는 전설이 맞을까? 세월의 풍상속에서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보여주듯 이제는 17기의 석탑과 우리 이웃들의 소박하고 친근한 모습과 닮아있는 80여기의 석불만이 남아있어 안타까움과 아직도 바위위에 누워계신 부처님께 서운한 맘을 뒤로하고 보성 차밭으로 향했다. 입구의 하늘로 치솟은 삼나무숲길은 통쾌함 자체이며 짝사랑하는 사람과 그 숲길을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잠시 덧없이 주위먹은 적지않은 나이를 탓해보기도했다

TV연속극속에서, 광고속에서만 보던 그 아름답던길. 눈이 시리도록 녹색뿐인 보성차밭을 여유있게 걷노라니 그행복함을 어찌 글로, 말로 설명할수있으리..... 어스름 저녁별을 받으며 바쁜걸음으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1박2일의 수련회와 산사음악회에 참가하기위해 백제고찰 대원사로 향했다.

서기 503년 아도화상이 산문을 열었다는 대원사는 조계종 21교구 본사인 송광사 말사로서 제법큰절이었으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극락전과 석조물 몇점만 남고 다 불타버려 1990년부터 절모습이 복원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주차장에서 바라본 티벳박물관 앞의 수미광명탑이 인상깊다. 일주문에 들어서서 석감실속에 모셔진 부모공덕불에 참배하고 눈물드니 구품연지라 불리는 수생식물로 뒤덮인 더할나위없이 운치있는 연못과 나무에 걸여놓은 왕목탁, 왕염주, 연꽃봉우리 모양의 예쁜 연지문, 그리고 그문을 통해 살짝보이는 안쪽 경내풍경! 한눈에 어우러진 그풍경들이 바로 무릉도원이 아닌가싶어 현기증이 일어날 지경이었다. 고구마와 감자로 저녁공양을하고 저녁예불과 함께한 임종예불로 숙연해진 분위기로 참가한 '산사음악회'는 구품연지위에 연꽃으로 장식한 귀엽고 앙징스런 무대와 서늘한 기운의 산바람과 물소리 별빛과함께 어우러져 정말 낭만적이었고 새벽두시까지 숙연함과 웃음이 번갈아 공존하던 주지스님과 함께한 시간을 끝내고 산사의 계곡물소리와 함께 잠들었다. 다음날, 새벽예불후의 선체조, 포행, 죽공양 그리고 이어진 티벳 박물관 견학. 티벳사원양식으로 건축된 박물관에는 달라이라마의 기념품을 비롯해 1,000여점의 티벳미술품이 있었다. 인솔법사님의 설명을들으며 2층한전에 들어서니, 세상에! 티벳 고유의 장례의식인 조장(새들에게 죽은 시신을 공양하는 장례의식)의 모습들을 찍은 사진들이 커다랗게 전시되어있었다. 3일간 집에 머무른후 영혼이 떠난 시신은 살점은 물론 앙상히 남은 뼈마저도 잘게뺏아 새들이 먹을수있게 뿌려 철저히 자연으로 회향하고, 흔적이 남지않을수록 행복한 내세를 맞이한다는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배고픈 중생에게 도움을 준다는 자비의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그들의 풍습은 흠과 나무가 귀한 척박한 생활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있기도 하겠지만 하근기의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숙연함으로 유서를 마주하면서 이제는 죽음의 의미를 막연하게 바라보지말고 죽음의 편에서 내게 남겨진 삶을 추슬러야겠다는 생각을하며 점심공양후 익산 송광사로 향했다.

전북순천의 송광사보다 규모는 작지만 한적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사찰로서 경문왕 7년 보조국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초창기에는 규모가 커서 일주문이 3km밖에 있었다고한다. 보물인 대웅전안의 소조삼존불좌상은 흙으로 빚은 삼존불로서 오른쪽의 아미타여래불은 나라에 좋지않은 일이 생길때면 탄을 흘리는 것으로 유명하며 그밖에 대웅전 천장의 불화, 대웅전앞의 십자각이라 불리는 '+'자 형태로 지어진 이층누각, 일주문의 흙으로 빚은 거대한 사천왕상등은 넓은 절터에 걸맞게 웅장한 모습은 보는이를 숙연케했다.

돌아오는 길은 잔잔한 감동과 함께 많은 생각을하게했다. 알고 믿어야한다는 고집으로 정신없이 듣고, 체계없이 이것저것 읽어대며 이리저리 껴맞추느라 좀처럼 집중되지않던 신심과 정리되지않는 혼란스러움을 감당못해 이런저런 핑계로 한동안 접어버린 나의 신행생활.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 내게 남겨진 삶을 반추해볼수있었던 이소중한 체험을 분기점으로 삼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리라. 문자로부터가아니라 절실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리라 다짐했다. 불교는 信.解.行.證으로 접근하라하지 않았던가?

세상에태어나 가장 잘한일 두가지중의 하나가 '종교를 불교로 택한것'이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확신하게한 감명깊은 사찰답사였다는 말씀드리며 함께한 불자님들의 복된 날들을 기원합니다.



경전강좌

이진창 내과

원장/내과전문의 이진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075(기업은행2F)
Tel.031-237-3339 Fax.031-222-5228

경전강좌 (원각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불전강좌(원각경) 강사: 가섭스님
기간: 10주 (90,000원)

불교미술의 이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10월 14일 개강)
강사: 권중서
기간: 3개월 과정 (90,000원)



생활 속의 선 수행

(내 안의 부처를 확인하는 것이 불교)

우리불교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불교는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공부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는 사람은 고통 받고 힘든 것으로만 알았는데 깨닫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부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설법했습니다.

불교는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하는 길인데 우리들은 불교를 지식으로 배워서 불교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불교가 어려워집니다. 불교 공부의 참의미는 우리 자신이 부처라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부처임을 믿지 않고 공부 하려면 불교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공부를 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중생의 습관 때문에 생긴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 참선입니다.

마음이 무명에 굳어져 있을 때 경전을 읽거나, 절을 하거나 하면 굳은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은 것은 움직임에 의하여 부드러워 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참회의 절, 기도, 주력 등 열심히 하면 굳어진 마음이 열려 그 틈새사이로 부처의 틈이 보이고 서서히 자각이 생깁니다.

이것을 선에서는 '照顧脚下'라 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조고각하'를 알게 하기는 힘듭니다.

서양인들은 절대자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묵상 등을 통해 일련의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이 아니고, 또한 본질적인 깨달음도 아닙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도 부처의 바탕(불성의 씨앗)위에 기독교의 교리로 포장하여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그 포장이 벗겨지면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알 것입니다. 내게 가려 있는 것이 부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양인들처럼 헛것에 가치를 느껴서는 안됩니다. 그런 반면에 불교는 깨달음입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원래 부처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임을 알면 내 속에서 부처님이 나옵니다. 하늘의 태양처럼 태양이 없어져서 어두운 밤이 된 것 아니라 태양이 지구의 다른 쪽에 가려서 어두워진 것처럼 우리의 불성, 또는 깨달음도 무명, 어리석음에 가려있을 뿐이지 원래 자기 안에 부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속담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모르지만 스스로 아는 지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열여섯 시간 이상 참선하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의 부처를 안 믿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공부 한다고 많이 들어서 귀만 단련시켜서 부처가 되려니 얼마나 힘이 들까? 하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바깥세상 속세에서 보기보다는 출가의 이 생활이 저는 더 쉽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떠나 과거나 미래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불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부처님을 느껴야지, 과거나, 미래의 부처를 느끼면 안됩니다.

미리 생각하여서 여러분에게 법문을 하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하려고 하면 더욱 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풀리지 않으면 미래도 풀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보이는 부처님만 생각하고 보시 행을 배우고, 육바라밀을 배운다고 하니 참 본질인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망각하고 불교가 어렵다고 느끼며, 내가 느끼는 불교, 내가 느끼는 불교가, 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을 불교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불교는 중도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양 극단을 놓아버리면 큰 바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곡물을 보십시오. 두 줄기의 계곡물이 흐르는데 아래쪽으로 흐르다 보면 호숫가에서 만나고 필경 바다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어떠합니까? 물을 만나러 계곡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악은 배척하고 선에 집착하거나 선을 배척하고 악에 집착하거나 해서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불교는 인간을 위한 것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나라가 대승불교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내안의 부처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역시 부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확인이 안 된 공부는 내가 너무 바깥으로만 눈을 돌려서 남의 것에만 신경을 쓰고 진정 나의 것을 소홀히 하여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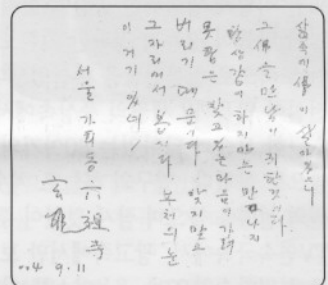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나 자신안의 부처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조복행



현웅스님 / 육조사 주지스님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 241-1004 /
원장실 : 248-1616



달마사행론 (3)



원광스님/본원 경전강좌 강사

불교가 중국에 전래 되면서 선(禪)의 수행 방법도 함께 전해졌다. 이 중에서 달마대사가 전한 선(禪)의 수행 방법은 이입(理入) 사행(四行)의 법이라는 것은 이미 알아 본 바이다. 이 달마의 선 수행방법은 달마 이전의 선 수행 방법보다는 간소화 되고 특성화 된 것이다. 이것이 이른 바 사행법(四行法), 즉 보원행과 수연행, 그리고 무소구행과 칭법행이다. 보원행은 인과에 대한 관법이요, 수연행은 무상에 대한관법이다. 그러면 무소구행과 칭법행은 어떤 것인가? 무소구행이란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탐욕심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탐욕심(애착심-욕망)이 생기지 않게 되는가? 우선적으로 모든 것이 허망하여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공)임을 깨우쳐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중생계)에서의 생활 현상은 마치 불난 집과 같은 것이어서 모든 것이 결국은 고통을 만들어 내는 것임을 절실하게 느껴야 한다. 또한 인간의 생활에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언제나 동반자의 관계라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욕망(탐욕과 애착)은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이 확고해 진다. 사실 중생의 욕망은 마음을 안정된 자리에 편안히 놓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은 늘 동요되고 고통과 불만이 표출된다. 따라서 평소의 생활이 평화롭기 보다는 불안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신자는 생활의 평안을 위하여 욕망의 발생을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것이 무소구행인 것이다. 이 무소구행을 하는 사람은 욕망에 의한 추구 보다는 의무적 정신에 의한 노력에 더욱 충실하게 된다. 그리하여 마음의 오염과 동요가 없어지게 한다. 또한 성공과 실패의 교차에서 오는 혼란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마음의 평온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칭법행이란 공관법(空觀法)과 자비행을 뜻하는 것이다. 우주 자연의 원리(법)와 인생의 정도(正道)는 실존적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한 것이며 변화의 모습을 나타 내는 것 뿐이다. 이것이 우주 자연의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를 터득하고 이 원리에 순응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의 정도를 가는 것이다. 인연에 의한 현상(생활 상)은 상호 협력에 의한 것이며, 여기에는 「나」라는 주체적 존재의 실존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것이 이른 바 공관법(空觀法)이다. 이 공관법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노력에 열중하여 생활사회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자비행의 기본이다. 이 자비행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에 대한 소유의 인식을 초월하여 자타를 위한 공익적인 생활 방법을 실천 한다. 또한 자신이 실천하는 자비행의 결과 마저도 겸허하게 사양하는 깨끗한 자세로 생활 한다. 이와 같은 생활 방법은 메마른 땅에 단비의 역할이 되어 생활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 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불국토의 장엄인 것이다. - 끝 -

경전강좌



파스타 하우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1-5
중동BD 2F T.031-255-8843

세무사

전 종 환

TEL. 031)246-1177
FAX. 031)257-5533

옛날 낙수리

<낙지한마리 수제비>

낙수리해물탕 · 아구탕 · 낙지전골 · 해물파전 · 낙지찜

대표 주 희 연

체인점 문의 및 예약 244-8206 / 247-8716



사찰답사

대원사 산사 음악회를 다녀와서

예심각 신영주 / 본원 사찰답사반원

추석을 앞둔 수련회인지라 많은 인원이 참석은 안했지만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작은 인원으로 단출하고 이쁘게 다녀오기로 했으니까 동참해 달라는 전화 때문에 바쁜 일정을 뒤로 미루고 이쁘게 다녀오자는 말에 불자인 고모랑 다녀오기로 했다.

생활권이 천안인지라 사찰순례 동참할 때마다 번번히 망향휴게소에서 정차해서 태워주시는 수고를 끼치고 있는데도 한번도 싫은 내색을 안하시는 문화원 식구들한테 지면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첫 번 코스로 도착한 운주사 가는 길은 길옆에 피어있는 정겨운 코스모스가 도심에 찌든 때를 벗기기에는 충분하고 먼 길을 달려온 피곤함을 잊게 했다. 운주사의 천불천탑의 아름다움은 불교미술사의 작품이라도 결코 흉내 낼 수 없을 것이다.

공사바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산세와 사찰의 아름다움은 절로 신심을 돈독하게 하였다.

어느 책에서 읽었던 최고의 명당자리가 바로 운주사에 있었다. 빠듯한 일정이라 아쉬운 발길을 보성차밭으로 옮기고 있었다. 차밭을 가는 길에 울창하게 덮은 삼나무 사랑의 길을 따라 걷다보니 자연히 삼림욕장에 온 느낌이었고 차밭에서 향기로운 향기와 깔끔하게 다듬은 차밭의 아름다움은 내가 시인이 아닌데도 시상이 떠오를 정도였으니까...

룸메이트에게 열심히 휴대폰 문자로 아름다움을 전송해주면서 아쉬운 발길을 대원사로 돌렸다. 너무 아쉬운 여정을 속으로 투덜댔지만 그것은 나의 기우였고 참 작은 마음이었다. 백제시대에 아도화상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대원사는 처음 인연으로 왔지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큰스님의 때 묻지 않은 넉넉한 웃음이 나를 넉넉하게 만들었다. 지장도량에 맞게 마침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준비"라는 과제를 놓고 많은 것을 알았다. 나의 직업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삶과 죽음에 대한 연민은 경이로움이었던가.

아름다운 죽음, 결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른 세계의 말로만 느껴졌는데 미리 써본 유언장에서 얼마나 숙연함과 망설임에 한참이 걸렸다.

삶의 방식을 바꿔볼 필요성과 반성도 해보고, 웰빙 시대에 맞게 저녁은 감자와 고구마를 먹으면서 내일 아침에는 죽을 준비했다고 하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나 고구마는 아주 맛있는 밤고구마였다.

식사 후 산사음악회는 결코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았지만 며칠 전 한국을 방문한 뉴욕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연주회에서도 이런 느낌은 없었다. 별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와 불빛, 달빛,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군더더기 수식은 필요 없었다. 잘 짜여진 음악회보다 더 커다랗고 웅장한 음악회였다. 청아하게 연주된 오카리나 연주는 잠재의식 속에 넣어둔 나의 감성을 끌어내고(큰스님 내년에는 산사음악회에서 음성 공양할 수 있게 뽕 좀 써주세요) 내가 불교를 믿는 의미와 목적이 되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편하게 앉아서 법문을 듣는 자리에서 위트와 유머 감각이 넘치는 현장 주지스님은 어렵게 불교를 접하고 있는 나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웃지도 않고 조용하게 우리들을 즐겁게 하시는 주지스님,

서울 년, 안산 년, 나이키,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주지스님은 요즘말로 "짱"이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아침산책과 선체조로 기를 맑게 받는 여유도 누려보고...

점심은 온갖 메뉴의 비빔밥은 꿀맛 그 자체였고 다이어트의 선구자인 고모를 감동시키기에도 남을 식단이였다.

많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완주 송광사의 부처님도 새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시면서 지긋이 쳐다보는 것이 나의 바른 수행할 동을 하라는 지침서일지도 모른다.

대원사 주지스님이 양념이 필요하면 다시 오라는 말씀을 새겨서 좋은 인연을 맺어서 다시 오겠습니다.

열심히 설명해주시는 권중서포교사님께 감사드리고 작은 모임이지만 항상 크게 느껴지는 문화원 사찰순례팀 건강하시고 파이팅!

원장님 신영주 정말 이쁘게 잘 다녀왔습니다. **정기 불교**



9월 후원회비 내주신 분들 (9월 1일~9월 30일)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강영진 김미월 김순자 윤영무 구광국 이옥자 장옥훈 김은주 진상범 양황경 한혜승 홍인숙 신재철

진철희 윤영예 이기순 김의순 정무근 현병국 김준옥 김영동 이태순 진기홍 조병희 조남종 김정수 조권형

권중서 염규용 이선우 양준영 이상범 박청용 안연찬 한경숙 이태갑 민준홍 배민한 문양순 이남덕 윤광숙

최명길 박경아 김영희 조창윤 강재수 이임성 주영월 이난호 송호윤 조명숙 양정례 정현숙 최숙련

권승하 장용집 이대곤 진주범 김기현 김말수 최정자 박선현 김용필 이병일 심화식 차용희 윤기수 (2,268,940원)

KTF 신영통 전속대리점

011, 017번호 그대로 가입하세요

031-255-5800

Phone A/S대행 신규가입,

요금수납, 기기변경

명의변경, 보상판매

대표 안창호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규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경기불교 소식

● 백인에게 듣는다 (열여덟번째)

이번 백인에게 듣는다는 지난 9월 11일 육조사의 현웅스님을 모시고 열렸습니다. '생활속의 선수행' 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강연은 미국,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한국불교를 전파하신 스님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진행되어 불자님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9월 사찰환경답사

9월 사찰환경답사는 "산사음악회"라는 주제로 전남 보성의 대원사의 산사 음악회와 죽음을 준비하는 "바르도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는길에 운주사와 보성차밭에 둘러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았으며, 돌아오는길에 들른 완주의 송광사는 대웅전 천정의 주악비천도와, 특이한 아(阿)자 모양의 십자각 종각루와 위봉폭포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 경전강좌 달마사행론 종강

지난 9월 24일 12주간 진행되었던 원광스님의 달마사행론이 종강되었습니다. 열심히 강의해주신 스님과 참여해주신 불자님들의 인연으로 원만하게 회향하였습니다.



● 제5기 불교기초교리 종강

제 5기 불교 기초교리의 수료식이 문화동산에서 9월 22일 수요일에 수고해주신 여러 강사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여법하게 치루어졌습니다. 수료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지순례안내

● 대만 성지순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에서는 11월 18일~21일 (3박 4일)대만불교성지순례에 나섭니다 동참자는 10월 11일 까지 접수마감이며 동참금은 69만원입니다.

대만 고궁박물관→용산사→태로각협곡→불광사→자재공덕회→자황사→야류해양공원
연락처 간사 용민숙 ☎031)251-1083 포교사단 ☎02)737-7588

● 인도 8대 성지 걸망순례

경기불교문화원(원장/ 진철희)에서 부처님의 8대 성지를 걸망으로 순례합니다 일정은 2004년 12월 23일 ~2005년 1월12일(20박 21일)이며 동참금은 198만원(예정)입니다 접수마감은 10월 31까지이며 많은 동참으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기 바랍니다.

연락처 간사 용민숙 ☎031)251-1083

"10월 사찰환경 답사", "백인에게 듣는다" 안내는 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3~5개월 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교강좌	불교의식반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 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수시
	기초교리	전문법사	3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10월 6일 개강
	경전강좌	가섭스님	30명	10주 90,000원	원각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10월 8일 개강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육조단경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12주)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10월 14일 개강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화강좌	요가반	장순이 문명순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목요일 오전 11시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	수시 수시
	단전호흡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우리춤 배우기	이순자	20명	5개월 100,000원	기본무, 살풀이, 한국무용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11월개강
	다도기초반	권섭순	20명	3개월 90,000원	다도 기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0월 12일 개강
	다도중급반	윤영예	20명	3개월 90,000원	다도 중급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10월 12일 개강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 운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10월 13일 개강
	중국어회화	최경희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중국어 회화	매주 월/수요일 오후 4시 30분	초, 중등생 / 수시
	영어회화	박영희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영어 회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주부반 / 수시
	경락반	고철성	20명	3개월 60,000원	한방경락, 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백인에게 듣는다	대덕스님 교수진	100명	무료	열린법회	매월 3주 토요일 오후 3시	10월 16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1박 2일 : 65,000원	경주문화기행	넷째주 토요일 오전 7시	10.23~ 24

■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증"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 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 031-251-1083/ 257-1083 FAX. 031-251-1779